

기타리스트 에디 반 헤일런 곡 분석 - <Panama> 중심으로 -

정희철*, 조태선**
*사운드박스 스튜디오,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e-mail:hunterguy9902@gmail.com
*e-mail:entheos@korea.com

Analysis on Eddie Van Halen's Panama

Hee-Cheul Chung*, Tae-Seon Cho**
*Soundbox Studio
**Dept of Applied Music, Choongwoon University

요약

에디 반 헤일런은 록 기타리스트로서 80년대 록 기타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기타와 앰프의 연구로 수많은 일렉기타와 록 밴드의 표준으로 자리했다. 1978년 Van Halen 이라는 앨범은 록 기타리스트들에게 충격을 선사한다. 태핑 주법을 과감하고 직접적으로 발전시키고 트레몰라 바를 이용한 아밍을 최초로 프레이즈화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타리스트 에디 반 헤일런 <Panama>의 코드 및 스케일을 연구 하겠다.

1. 서론

Rock이라는 장르를 싫어하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마이클 잭슨의 Beat it은 모두 들어봤을 것이다. 그중 화려한 태핑(Tapping)기술과 아밍(Arming)을 이용한 기타솔로는 많은 청중들의 놀라움을 자아냈을것이라 생각된다. 1978년 Van Halen이라는 앨범이 많은 기타리스트들의 관심이 쏠린다. 재즈 기타나 컨트리 기타에서 가끔 쓰이는 태핑 주법을 헤비메탈에 도입하고 클래식한 멜로디를 들려주었고 트레몰로(Tremolo) 피킹, 레가토(Legato) 피킹, 얼터네이트(Alternate) 피킹을 섞어 새로운 속주 스타일을 보여주며 당대 기타리스트들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트레몰로 바(Tremolo Bar)의 다이브봄(Divebomb)주법을 비롯해 여러 연주법을 널리 알렸다. 70년대와 80년대 사이 헤비메탈과 하드록의 음악적인 차이를 가장 많이 벌려놓은 장본인중 하나로 꼽힌다.

1955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음악인 집안에서 자란 그는 피아노를 배웠지만 체계적인 클래식 교육을 싫어해 부모님과 대립했

다.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것 보다 듣고 카피하는 방식을 선호했고 따라 자기만의 스타일로 즉흥연주를 하는 것을 좋아했다. 정식 교육을 받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그래도 부모님의 영향으로 그의 연주는 클래식한 멜로디가 가미되었고 본인만의 스타일로 기존의 기타 연주방식을 바꿔놓았다. 그의 1집에 실린 Eruption은 형식이 정확하지 않은 짧은 연주곡이지만, 여기서 보여준 그의 테크닉과 사운드는 기존의 기타리스트들에게 엄청난 파란을 일으켰고 레드 제플린(Led Zeppelin)과 딥 퍼플(Deep Purple)을 카피하던 기타리스트들은 반 헤일런의 모든 것을 카피하려 하였다. 또한, 그가 추구한 사운드는 5150앰프의 탄생과 함께 록/메탈 사운드의 표준으로 자리한다. 편안한 연주와 강한 사운드를 원한 반 헤일런이 개조한 기타 역시 오늘날의 슈퍼스트랫(Superstrat) 기타의 시초라고 여기고 있다.

2. 본론

2-1 Panama

이 곡은 Van Halen의 6번째 앨범 1984에 수록된 곡이다. 그의 대표곡인 Jump가 수록되어있어 이곡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그가 생전에 좋아하던 자동차에 빚된 곡으로서 신나는 리프와 144bpm의 빠른 템포의 대중적인 감각의 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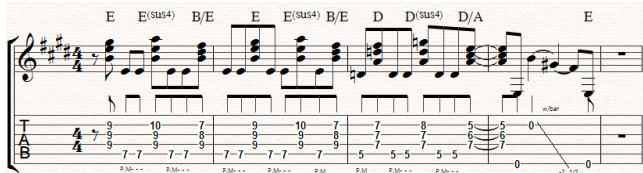


Fig. 1. - Intro 1

26마디의 긴 인트로지만 크게 3문단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 4마디는 I-V-bVII-IV로 진행되며 D 코드는 EKey의 b7도로 4도의 대리코드로 많이 쓰인다. 마지막에는 암을 이용하여 다이브 붐 주법을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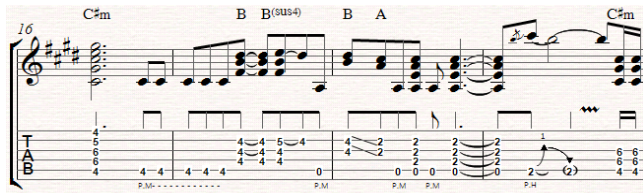


Fig. 2. - Intro 2

두 번째 4마디는 VI-V-IV로서 다이아토닉 코드진행이다. C#m는 1도의 대리코드로 사용한다. sus4의 사용과 코드의 1도 3도를 높은 쪽으로 배치한 슬라이딩, 피킹 하모닉스를 사용하여 멜로디라인을 섞은 리프가 연주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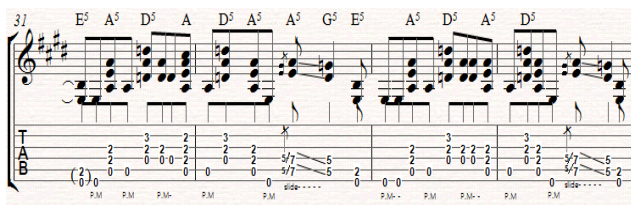


Fig. 3. - Intro 3

세 번째 4마디는 E, D, A, G 코드가 나온다. 이 진행에서 D코드와 G코드는 모달 인터체인지(Modal Interchange)를 이용해 Em Key에서 가져왔다. 전체적으로 파워코드로 연주되어 무게있는 록 적인 요소를 살렸다. 이 진행은 후렴부분과 동일한 진행으로

연주한다. 전체적인 연주가 싱코페이션(Syncopation)과 팜뮤트(Palm Mute)를 이용하여 루트(Root)를 쳐 줌으로서 전체적으로 속도감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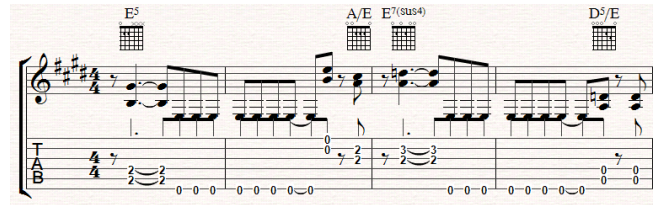


Fig. 4. - A Part

I-VI-I7sus4-II의 코드 진행이며 베이스는 E를 반복적으로 연주하고 있다. E7sus4는 4도의 대리코드로 사용되었다. D코드는 모달 인터체인지를 이용해 Em Key의 VII코드를 사용함과 동시에 A음은 E코드의 sus4의 역할을 하여 다음에 나오는 E코드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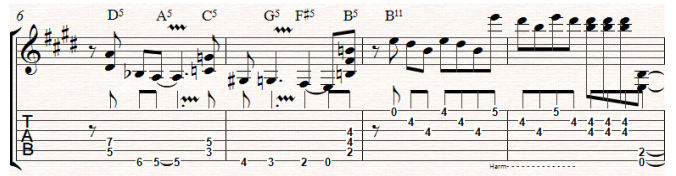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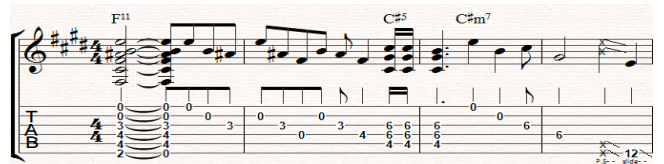


Fig. 5 - B Part

F# key I도로 전조를 시킨 모습이다. 이후 기존의 6도 코드인 Cm7으로 바뀌는 모습이다. 아르페지오 구간에 공통화음인 11음과 Cm7의 5도 음인 E를 사용하면서 코드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였다. 모달 인터체인지를 통한 D5→A5, C5→G5의 코드진행은 완전 4도 하행진행이며 F#5→B5는 완전 4도 상행진행을 하고 있다. A#, G#은 패싱 노트(Passing note)로 이용하고 있다. 마지막 5도sus4를 사용하고 완전 5도 아래인 E5로 후렴이 시작된다.

